

# 농번기, 유연한 외국인 노동자 대책 필요하다

### 당국 단속 강화로 양파·마늘 수확조차 힘들어 가격 하락·인건비 상승·장마 등 '3중고' 호소 서삼석 "무차별 단속은 명분·실익 없다" 강조

농번기를 맞아 농민들의 부담을 덜고 농업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농가

인구는 약 24% 감소, 고령화율은 약 12% 이상 증가했다. 이는 곧바로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농촌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번기는 여러 농가가 동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이다. 현재 부족한 노동력의 대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농촌 농업인력의 80-90%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중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가 소위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농번기 농촌 현장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부족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결과'에 따라

면 인건비의 상승 폭이 2015년 대비 52.9%로 크게 폭등했다. 성인 남성 외국인 노동자의 일당이 2년 전보다 약 30% 폭등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농민들은 "인력 부족 문제는 과거에도 꾸준히 문제가 됐고 이로 인한 농민의 피해 또한 이미 예견됐다"며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사짓기 힘든 상황으로 웃돈을 얹어주면서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 당국의

일방적인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화로 농번기 농가의 인력 수급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농업소득은 1천만원 미만을 기록해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인건비, 비료비, 사료비, 에너지 비용 등 경영비 증가와 수입 감소 때문이다. 특히 올해 양파 농가의 약 70%가 저온 피해와 서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양파 최대 주산지인 무안군의 경우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었다.

농가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심화로 농업에 손 놓은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삼석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사를 열심히 지는 농민들이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는 국가가 농촌과 농업,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화에 대해 서 의원은 "농번기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무차별적 단속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농번기 이후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시기를 조정하고 대책 없는 단속보다는 유연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답변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출마설' 놓고 민주당 의견 분분

### "조국의 늪" vs "정치공간 열어줘야"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총선 승리를 위해 정치적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원천 의원은 13일 S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은 그분(조 전 장관)이 어떤 정치적인 플랜과 움직임을 갖든 철저히 무관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총선에) 나오려고 한다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정

지를 하려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국민이 실망한 지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설명이나 사과가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 역시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만약 조 전 장관이 출마한다고 하면 '조국의 늪'에 빠져서 총선에서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국의 강', '김남국의 늪', 또 다시 '조국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 공정의 문제를 다시 꺼내 들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한다"며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으니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신중론을 폈다. 반면, 박석준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그런(적합한) 인물이 있다고 하면 정치적 공간을 다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출마를) 막아서는 안 되고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게 내년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주철현 '해양관할구역 확정법' 대표발의

### 해양 관할구역 분쟁 신속·공정 해결 목적 朱 "지자체 행정력·비용 낭비 최소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13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해양을 관할 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도서(島嶼)의 관할,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개발 등 해양 이용이 다변화되면서 이에 따른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법에 지자체의 해양 관할 구역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관련 분쟁들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해결되다 보니 현재 결정

이 나오기까지 장기간 소요돼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상은 분쟁 범위에 한정되기 때문에 현재 결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안은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 구역의 확정에 관한 원칙·기준을 정립하고 해양 관할 구역 확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와 확정 절차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 관할 구역도 '종전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는 등 해양 관할 구역 확정 원칙을 마련했고, 이 법안에 따라 확정하는 해양 관할 구역도 '지방자치



법'의 예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나아가 해양 관할 구역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해수부장관에게 해양 관할 구역 확정을 신청하면 확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반영해 해양 관할구역의 확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고, 확정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의 변화로 이미 확정된 구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 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충실하도록 해양 관할 구역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안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해수부장관의 관할구역 확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해 불복 절차와 관련된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 /김진수 기자

## 윤재갑 '스마트농업 육성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13일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 재배시설을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수직농장이나 작물 재배

스마트팜은 농업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에 설치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농업인이 정부가 장려하는 스마트팜 재배 방식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때도 농지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농지로 인정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 작물 재배시설을 포함하도록 해 스마트팜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진수 기자



www.slhealth.co.kr

#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후지의료기  
**PFC-7900**



1954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안마의자를 개발한 일본의 명품 안마의자 브랜드

주요기능 : 4D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자동 다리길 이 조절 / 12단계 강도조절 / 7가지 심층마사지 기술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12종류의 부위별 집중 마사지 / 3가지 부위 집중 스트레칭 / 더블히터 / 21가지 자동코스 / 4개국 어 지원 4.1인치 터치스크린 리모컨

후지의료기  
**JP-870**



67년 역사의 일본명품 안마의자 후지의료기 세계 최초 안마의자 개발, 일본 의욕기인증

주요기능 : 4D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5가지 부위 집중 마사지 / 더블히터 / 더블히터 / 4가지의 초강력모드 / 4가지의 릴렉스모드 / 4가지 기본코스

사파헬스케어  
**SF-5100**



꼭 필요한 기능을 빈틈없이 담은 사파헬스케어 SF-5000(에어윈)으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9가지 자동코스 / 유직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2중온열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온열마사지 / 전방 슬라이딩으로 공간 절약 / 슈퍼 플 LSP프레임 / 블루투스 연결 / USB충전 지원

사파헬스케어  
**SF-5000**



SF-5000(더 베스트)의 기술력으로 차원이 다른 힐링의 세계를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마사지 / 유직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어깨 에어백 위치 조절 / 발바닥 롤러마사지 / SL프레임 / 전방 슬라이딩 / 듀얼 에어퍼프 마사지 / 12가지 자동코스 / 헤드지압 마사지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